

임산부의 태교에 대한 태도유형 분석 -Q 방법론적 접근-

김 순 이* · 류 칠 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동·서양을 막론하고 결혼을 하면 모든 부부는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갖게된다. 아들이냐 딸이냐,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인가 매우 궁금해진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남보다 튼튼한 아이, 똑똑한 아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인가로 고심한다.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것을 위해 태교에도 열심이고 아기가 태어나면 교육에도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태교는 심신이 건강한 아기의 수태와 태내발달 및 출생을 위하여 부모가 될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아기의 출생까지 필요한 모든 총체적·교육적 노력이다(권영철, 1972; 유안진, 1984; 이동민, 1989). 이러한 태교는 전통적으로 동양의 문화권에서 특히 강조되어 왔다. 우리 조상들도 태교를 아주 중요시하였다. 먹지 말라는 음식도 많았고, 보거나 들어서는 안되는 일도 많았다. 아기를 가진 며느리는 온 집안 식구들로부터 대접을 받았다. 덜 익거나 벌레먹은 과일, 만들다 잘못해서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온 음식은 그 전에는 대부분 며느리 차지였지만 임신을 하면 어딜가나 사람들이 제

중고 반듯한 것으로 골라서 주었다. 또한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집안 식구들은 물론 이웃들도 임신한 여성에게는 나쁜 말을 들려주지 않았고, 나쁜 일이나 흉한 일이 있어도 산모에게는 특별히 배려를 했으니 태교는 임산부 혼자서 하는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것임을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최신행 초음파 기계도 없었고, 태아의 발달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때 이미 우리 조상들은 태아의 모든 신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대처해 왔다(조희숙, 1996).

한편 서양의학에서 태교는 역사 속의 주술적 혹은 미신적 민속의 한 형태로 밀려나 객관화된 지식체로 정립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양의학에서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배아시식이나 인공수정등이 가능해지고 태아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초음파가 등장하여 실증적 자료등이 축적되고 있으므로 임산부 태아관계를 단순히 모체와 태아간의 상호작용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으며(Smotherman & Robinson, 1988), 태아가 모체를 통하여 받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태교는 태아의 성장뿐만 아니라 발달을 위해 기울이는 총체적·교육적 노력이므로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유아교육학자들도 관심을 가지며, 임산부가 자신이나 태아를 위해 기울이는 행위에 따라 전혀 다른 건강과 성장발달 결과들이 뒤따르므로 모성간호에서도 중요

* 대전전문대 간호과

** 대전전문대 유아교육과

하게 생각되어지는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교에 관한 연구는 주로 태교의 과학적 검증 여부와 관계없이 경험적 준거에 의하여 임신 중 어떠한 형태로든지 태교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양적인 연구들이 주류를 이어왔다(김혜자, 1991; 최연순, 김현옥, 1995; 이정섭외, 1987; 조동숙, 1987; 최경옥, 1974). 그러나 실제로 임신부들 비롯한 가족들에게 총체적·교육적 노력이라는 태교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아교육과 모성간호 영역에서 우리나라 임신부의 태교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주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태교는 매우 주관적이고 개별화된 경험이므로 이를 경험하는 사람의 주관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통해 태교의 독특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대상자 관점에서 간호현상을 보기위한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태교에 대한 질적인 연구로서 제시된 태교실천에 대한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김현옥, 1997)에서는 태교영역을 분류하여 태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태교행위를 객관화 하기에 유용하며 인간의 주관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임신부들이 어떠한 태교의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와 태교의 구조를 파악하여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1. 태 교

태교란 새 우리말 큰사전에 의하면 임신한 여자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언행을 삼가는 일이라 하였고 한국어 대사전(1976)에는 임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언행, 마음, 감정을 정화시키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국전통사회에서 인간의 교육은 잉태이전 양친의 자격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한 인간을 생산·교육하기 위해서는 잉태하기전 여자에게는 모친의 자격이 요구되었고, 남자에게는 부친으로서의 자격이 요구되었다. 인간교육에 대해 이처럼 신중하게 생각했던 태도는 수태중 양친이 실천하는 교육적 노력이 간접적으로 태아를 교육한다는 태교사상에 이르게 되었다.

태교는 임신부와 태아를 위하여 기울이는 총체적·교

육적 노력이며,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태교와 우리 문화권의 태교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과 태아 애착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서양의 태교가 있다.

동양의 태교는 사물이나 인간을 총체적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려는 문화적 특징이 내포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사주당 이씨, 소화 13년, 1338; 유안진, 1992; 이동민, 1989; 임동근, 1986; Cranley, 1981). 또한 태교의 수행기간은 수태이후가 아니라 임신이전에 임신을 계획하거나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기까지를 포함하며, 대상도 어머니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버지, 시부모, 친부모, 그 외의 모든 가족에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태교를 심신이 건강한 아기의 수태와 태내 발달 및 출생을 위하여 부모가 될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아기의 출생시기까지 필요한 모든 총체적 노력의 개념이다(권영철, 1972; 유안진, 1984; 이동민, 1989).

서양의 태교는 수량화하고 구체적·조작적·논리적·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서양의 학에서 설명되는 것은 임신부가 태아와의 심리적 상호 교류나 어머니 역할 준비 측면에서 실시되는 행위이다. 이는 주로 모체와 태아간의 상호교류에 중점을 두는 애착의 개념을 중시한다(Davis & Akridge, 1987; Cranley, 1981). 따라서 서양에서는 임부와 태아의 관계를 생물학적 측면과 함께 심리적 과정 중심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동·서양의 개념을 종합해 볼 때 태교는 임신부가 태중 아기를 위하여 수행해야 할 주의사항을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임신 이전의 준비시기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가족의 보다 적극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교육적 노력이며, 심리적 요소이상의 성격, 인격, 인지, 감정, 안전도모 및 생물학적 조절의 차원까지를 내포하는 총체적·포괄적 건강추구 행위이다.

2. 태교에 대한 연구 경향

총체적·포괄적 개념인 태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수정이 가능해지고, 태아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초음파가 등장했고, 태아의 감각능력 발달과 출생후의 발달과 상관성이 있다는 실증적 자료 축적 등의 이유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경향은 태아도 외적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능력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연구와 과학적 검증 여부와 관계없이 경험적 근거에 따른 신념을 갖고 태교의 효과를 믿으며 태교를 실천하는 연구가 있다.

먼저 임신 중 태아가 외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태아에게 청각적 자극을 가하면 눈을 깜박거리고(Eaton, 1984), 얼굴을 찡그리며 심박동이 변화한다(Bernard & Sontag, 1947)고 보고하였다. 또한 출생후 신생아에게서 관찰되는 행동들은 이미 태아 때 경험한 것과 상관이 있다(Spencer & Decasper, 1987; 한국방송공사, 1984; Birnholz, 1984)고 보고하였다. 특히 Janov(1973)는 산모가 임신 8개월 때 공원에 가서 사격장의 총소리를 들었는데 그 당시 태아가 심하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였고, 분만 후 8개월 쯤 되어서 다시 아기를 데리고 그 공원에 갔을 때에 또다시 총소리가 났는데 아기가 보통 이상으로 놀라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함으로써 태아의 대뇌는 수태후 2개월 경부터 그 기능이 작용하기 시작하며, 태중의 경험이 후에 노이로제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Salk(1962)는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실에 사람의 심장고동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틀어놓고 아기들에게 들려주었더니 그 방에서는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훨씬 줄었음을 보고하면서 이는 태중에서 들던 엄마의 심장고동소리와 유사함을 알고 위안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둘째, 경험적 근거에 따른 신념을 갖고 태교의 효과를 믿으며 태교를 실천하는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임신부들은 태교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와(최경옥, 1974; 이정섭외, 1987; 조동숙, 1987; 김혜자, 1991) 태교의 내용에 관한 연구(김혜자, 1991; 장순복외, 1996; 김현옥, 1997)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태교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맥락내에서 그 가치와 신념에 맞는 태교의 구조를 도출하는 것은 의의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현옥(1997)의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을 통해 태교의 실천을 이해하는 것과 달리 임신부가 태교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임신부의 태교에 대한 주관성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형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들 연구결과가 나타내 주듯이 임신중 태아가 받은 자극은 어떠한 형태로든 출생 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많은 임신부들은 태교의 효과를 믿으며 신념을 갖고 태교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태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방향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장순복외, 1996). 따라서 임신부들이 이행하고 있는 태교의 기본

적인 틀이 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1) 연구절차

임산부의 태교에 대한 Q-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우선 진술문이 추출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태교에 대한 개념과 진술을 사전에 조사하였다.

제 1단계의 임신부의 태교내용 추출 방법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한 방법이며 둘째, 개방형의 질문을 통한 면담 및 서면조사이고 셋째, 심층면담을 통하여 추출하였다. 면담 및 서면조사의 대상자는 임신부 20명, 출산경험이 있는 주부 20명, 유아교육학 교수 1명, 간호학 교수 1명, Morrison(1984)은 유아교육을 0세에서 8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한 것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사중 출산경험이 있는 교사 20명과 출산경험이 없는 유치원교사 20명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다. 또 임신부 3명을 선정하여 임신의 의미, 임신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을 바탕으로 태교가 무엇인지, 태아를 위하여 특별히 할일이 무엇인지, 태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임신을 했을 때 심층적으로 면담하여 조언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등을 동의하에 녹음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면담 내용중에서 태교에 관한 내용을 모성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같은 진술문의 내용은 제외하고 105개의 Q-모집단을 확정하였다.

2) Q-표본의 선정과 P표본의 선정

진술문 표본제작의 기초 단계로서 비슷한 의미끼리 합치고 정리하기 위하여 영역별로 분류하였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끼리 배열한 후 동일한 의미끼리 묶고 분류하기 어려운 진술은 그대로 두고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Q-모집단에 포함된 진술문들은 총 21개 범주였으며, 각 범주에 속한 하위 진술문은 최소 1개부터 최대 10개였다. 각 주제별 범주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진술문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한 후 각 진술에 대해 긍정, 부정문을 작성하여 방법론 지도교수의 도움을 얻어 33개의 최종 Q-표본을 선택하였다(표1 참조). Q-방

〈표 1〉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의 내용

내	용
1.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임신시에도 적당한 운동을 해야한다	
2. 임신시에 운동을 하는 것은 모체나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임신을 했어도 자신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4. 모체의 건강을 위해 평소보다 일을 크게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임신시에는 무조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6. 임신시에는 청결하기 위해 목욕을 자주하는 것은 태아에게 좋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7. 임신시에는 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	
8. 임신시에도 약간의 술은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	
9. 임신시에는 평소에 먹는대로 음식을 먹어야 소화에 지장이 없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	
10. 임신중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 임신부를 위한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필요하다	
11. 임신시에는 반듯한 음식으로 가려먹는 것이 태아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12. 임신시에 어떻게 생긴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다 해도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 임신시에는 마음의 평화가 훌륭한 영양분이라고 생각한다	
14. 항상 밝고 명랑한 생각만 하고 생활하는 것이 태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15. 임신을 했다고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보다 평소시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6. 임신시에는 가족 특히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7. 임신을 했어도 주변 식구들에게 불편함을 미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18. 임신중 남편과의 성관계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19. 남편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기 위해 임신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20.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대를 하며 책임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다	
21. 태아기부터 태아의 미래를 계획하거나 기대를 갖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22. 임신시에는 태아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여 친밀한 교류를 갖는다	
23. 임신시에는 정서함양을 위해 음악, 그림 등을 감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임신중에도 태아의 인지발달을 위해 독서를 해야한다	
25. 옛부터 임신시에 금기시 되고 있는 것은 꼭 지켜야 아기에게 좋다고 생각한다(초상집 안가기등)	
26. 전통적으로 금기시 되고 있는 것은 현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27. 임신시에는 되도록이면 자신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평소시와 같은 성격을 유지하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28. 태교를 잘한다고 해서 아이의 지능이나 신체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9. 임신을 했다고 너무 유난을 떨고 생활하는 것보다 평소시대로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	
30. 임신중에는 신앙생활이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된다	
31. 임신할 때는 시나 때를 가리고 수태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나는 태교의 효과를 확실히 믿는다	
33. 정서의 발달정도에 따라 문화적 수준이 달라지듯 태교에 필요한 음악이나 독서도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법론은 개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의 의미성 또는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 조사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T시에 거주하는 임신 12주 이상, 출산후 5일 이내의 임신부 30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큰 모집단인 경우 Q-방법론의 소표본 이론에 어긋나는 통계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의 수를 30명으로 하게 되었다. 또한 P 표본 선정은 대상자 선정에 무작위 방법보다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임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임신 12주 이상의 임부와 임신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는 출산후 5일 이내의 산모를 임의 표출하였다.

3) Q-카드와 Q-표본의 분포도 작성

Q-카드를 표본으로 선정된 33개의 진술문들을 6×10cm의 쉐트지로 카드화하였고 자신의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분포 시키는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Q-표본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4) Q-분류 과정

Q-카드와 Q-표본의 분포도를 이용하여 9점 척도상에 대상자의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강제 정상분포 방법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의 의견이

정상분포선상에서 있다는 전제하에 강제분포하도록 배열하기 위해 진술문 카드와 배열판을 준비하여 연구자의 설명에 따라 전체를 읽어보게 한 후 분류토록 하였다. 또한 양극단에 분류된 진술문에 대한 선택이유를 메모하거나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던 것을 풀어서 기록하였다.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여 컴퓨터에 입력 시켰다. 코딩은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항목 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가장 반대하는 경우(-4)를 1점으로 시작하여 2점(-3), 3점(-2), 4점(-1) 그리고 중립인 경우(0) 5점, 6점(+1), 7점(+2), 8점(+3), 가장 찬성하는 경우(+4)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자료분석은 pc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요인 분석은 주요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의 분석

1. Q-유형의 형성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 임신부의 태교에 관한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3개의 유형은 전체변량의 59.5%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을 보면 제 1유형이 44.2%, 제 2유형이 9.5%, 제 3유형이 5.6%였다. 제 1유형이 44.2%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한국 임신부의 태교의 주관성의 구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유형별 Eigen value와 변량의 백분율

	제 1 유형	제 2 유형	제 3 유형
아이겐치	13.28	2.87	1.69
변량의%	.4428	.0959	.0566
누적빈도	.4428	.5387	.5933

3개의 유형간의 상관계수는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이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제 1유형과 제 2유형간의 상관계수는 .585이며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519,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427로

상관계수가 나타나 각유형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남으로서 전체적으로 제 1유형의 큰 축을 중심으로 제 2유형, 제 3유형이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Q-방법론에서의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R연구에서의 요인분석과는 달리 각 요인간의 완전한 독립성(orthogonality)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높고 낮음에 따른 요인추출 방법의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

〈표 3〉 유형별 상관계수

	제 1 유형	제 2 유형	제 3 유형
제 1 유형	1.000		
제 2 유형	.585	1.000	
제 3 유형	.519	.427	1.000

조사 대상자의 구성을 보면 제 1유형은 17명, 제 2유형은 9명, 제 3유형은 4명으로 되어 있으며 각 유형내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4).

2. 임신부의 태교에 대한 유형별 분석

임산부들의 태교에 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각 유형에 속한 임산부들이 긍정적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각유형의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내기 보이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이 Q-분류시 적극찬성과 적극반대에 분류한 진술문 선택이유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Q-방법론 전문가 1인과 함께 최종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1) 제 1유형 : 정서 안정형

제 1유형으로 분류된 임산부는 모두 17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20대가 9명, 30대 초반이 8명이었고 모든 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8명이었고 그외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1명만이 가지고 있었으며 건강상태는 보통이상으로 거의 양호한것으로 나타났고 출산력은 초산부가 8명이고 나머지는 2번째 임신을 한 경산부로 나타났다.

제 1유형에 속한 임산부들이 태교에 관한 주관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Z = \pm 1.00$ 이상)은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 1유형에 속한

<표 4> 각 유형의 구성원 및 인자가중치

유형	응답자	연령	학력	종교	직업	건강상태	출산력	인자가중치
유형 1	V2	31	대졸	천주교	주부	좋음	경산부	1.6167
	V6	26	고졸	천주교	주부	좋음	초산부	1.9132
	V7	33	대졸	천주교	주부	감상선기능항진증	초산부	2.6403
	V8	21	고졸	무	주부	좋음	초산부	.8548
	V9	32	대졸	무	주부	좋음	경산부	.6980
	V12	29	고졸	무	주부	좋음	경산부	1.7942
	V13	32	고졸	기독교	주부	좋음	경산부	.8070
	V14	33	고졸	무	주부	보통	경산부	1.1407
	V16	30	고졸	불교	주부	좋음	경산부	1.9961
	V17	26	고졸	무	주부	좋음	초산부	1.0752
	V18	29	대졸	천주교	주부	좋음	초산부	.7254
	V20	32	대졸	기독교	주부	좋음	경산부	1.3429
	V23	27	대졸	무	공무원	좋음	초산부	1.2366
	V25	32	대졸	무	주부	보통	경산부	.6002
	V27	26	대졸	무	주부	좋음	초산부	.9241
	V28	29	고졸	무	주부	좋음	경산부	.8956
	V30	24	고졸	기독교	주부	좋음	초산부	.8727
유형 2	V3	25	대졸	기독교	주부	좋음	초산부	1.7185
	V4	34	고졸	기독교	주부	좋음	경산부	1.5084
	V5	28	대졸	기독교	주부	좋음	경산부	.8998
	V10	33	대졸	기독교	교사	좋음	경산부	1.1039
	V15	26	고졸	천주교	주부	좋음	초산부	1.2433
	V19	26	고졸	무	주부	좋음	초산부	1.6441
	V21	26	고졸	무	주부	보통	경산부	1.3400
	V26	34	대졸	무	교사	좋음	경산부	1.3244
	V29	32	대졸	무	공무원	좋음	경산부	1.1723
유형 3	V1	30	고졸	무	주부	보통	경산부	.8851
	V11	28	대졸	불교	주부	좋음	초산부	1.7362
	V22	30	대졸	무	주부	보통	초산부	3.0238
	V24	26	고졸	무	주부	좋음	초산부	.6097

<표 5> 제 1유형의 Z=±1.000이상인 진술문

항목번호	진술항목	표준점수
13	임신시에는 마음의 평화가 훌륭한 영양분이라고 생각한다	1.73
20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대를 하며 책임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다	1.63
16	임신시에는 가족 특히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53
23	임신시에는 정서함양을 위해 음악, 그림등을 감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1.22
22	임신시에는 태아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여 친밀한 교류를 갖는다	1.07
28	태교를 잘 한다고 해서 아이의 지능이나 신체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11
26	전통적으로 금기시 되고 있는 것은 현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23
19	남편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기 위해 임신하는 사람에 보면 이해 할 수 없다	-1.25
2	임신시에 운동을 하는 것은 모체나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0
12	임신시 어떻게 생긴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다 해도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45
6	임신시에는 정결하기 위해 목욕을 자주하는 것은 태아에게 좋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1.57
8	임신시에도 약간의 술은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	-1.88

임산부들의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인 진술문은 「임신시에는 마음의 평화가 훌륭한 영양분이라는 것」($Z=1.73$),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대를 하고 책임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 것」($Z=1.63$), 「임신시에는 가족 특히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Z=1.53$), 「임신중에는 정서함양을 위해 음악, 그림감상을 하는 것」($Z=1.22$), 「임신중에는 태아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여 친밀한 교류를 갖는 것」($Z=1.07$)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 1유형의 임산부들이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임신시에도 약간의 술을 먹는 것」($Z=-1.88$), 「임신시에 목욕을 자주하지 하지 않는 것」($Z=-1.57$), 「가리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Z=-1.45$), 「임신시에 운동을 하는 것」($Z=-1.40$), 「남편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기 위해 임신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Z=-1.25$), 「전통적으로 금기시 되고 있는 것은 현대에 맞지 않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Z=-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점에서 볼 때 제 1유형에 속한 임산부들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마음의 평화와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감상, 그림감상, 남편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끊임없이 교류하는 태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태아와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 술과 같은 음주는 금지하고 목욕을 자주하여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관습인 고르게 생긴 음식을 먹는다는 것, 금기시 되고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제 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 2.6403을 보임 7번대상자는 33세 초산부로서 종교는 천주교이고 8개월된 임부로서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찬성하는 진술항목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태교에 필요한 음악이나 독서를 하는 것」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밝고 명랑한 생각을 계속하는 것」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등을 택하였으며 선택이유에 대해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기분이 좋다. 또한 잘 안되지만 밝은 생각을 하려고 하며 태동을 느낄때마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느끼며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답변하였다.

7번대상자의 위와같은 견해는 낮게 동의한 진술문에서도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약간의 술을 마시는 것」 「어떻게 생긴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 것」 「임신시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 「목욕을 자주하지 않는 것」 「전통적으로 금기시 되는것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의 진술문들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술은 산모나 아기에겐 나쁘기 때문에 먹지 않으며 아무리 전통적인 관습이라도 아기에겐 좋다면 지키는 것이 안심이다.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약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표현한 것을 볼 때 태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임신기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 1유형은 태교를 위해 마음의 평화 정서함양, 남편의 관심과 도움을 중시 여기며 태아는 생명체로서 태교를 통해 끊임없이 교류하고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전통적인 관습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따라서 태아와 임산부들 위한 태교로서 정서의 주관성, 관계의 중요성, 신체의 중요성, 사회적인 관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태교의 총체적인 현상을 볼 수 있지만 남편의 도움, 태아와의 교류, 신앙생활을 통한 마음의 평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서 안정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2) 제 2유형 : 자기 조절형

제 2유형으로 분류된 임산부는 모두 9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20대가 5명이고 30대는 4명이었고 종교가 있는 임산부는 5명이고 없는 임산부는 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업은 3명이 가지고 있었으며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력은 초산부가 3명이고 나머지는 2번째 임신을 한 경산부였다.

제 2유형에 속한 임산부들이 태교에 관한 주관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Z=\pm 1.00$)은 <표 6>와 같다.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 2유형에 속한 임산부들의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인 진술문은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대를 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Z=1.71$), 「임신시에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Z=1.64$), 「임신을 했어도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Z=1.61$),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Z=1.32$) 「임신을 했어도 평상시대로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Z=1.13$), 「평상시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Z=1.11$), 「평상시와 같은 성격을 유지하는 것」($Z=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 2유형의 임산부들이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문

〈표 6〉 제 2유형의 Z=±1.00이상인 진술문

항목번호	진술항목	표준점수
20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대를 하며 책임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다	1.71
16	임신시에는 가족 특히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64
3	임신을 했어도 자신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1.61
1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임신시에도 적당한 운동을 해야한다	1.32
29	임신을 했다고 너무 유난을 떨고 생활하는 것보다는 평상시대로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1.13
15	임신을 했다고 특별히 신경을 더 쓰는 것보다 평상시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11
27	임신시에는 되도록이면 자신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평상시 같은 성격을 유지하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6
7	임신시에는 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	-1.00
11	임신시에는 반듯한 음식으로 가려 먹는 것이 태아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1.14
6	임신시에는 청결하기 위해 목욕을 자주하는 것은 태아에게 좋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1.17
31	임신할 때는 시나 때를 가리고 수태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47
25	옛부터 임신시에 금기시되고 있는 것은 꼭 지켜야 아기에게 좋다고 생각한다(초상집에 안가기 등)	-1.59
8	임신시에도 약간의 술은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	-1.70
2	임신시에 운동을 하는 것은 모체나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5

은「임신시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Z=-1.85), 「약간의 술을 마시는 것」(Z=-1.70), 「옛부터 금기시 되는 것을 꼭 지키는 것」(Z=-1.59) 「임신시에 시나 때를 가리고 수태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Z=-1.47),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것」(Z=-1.17), 「반듯한 음식으로 가려 먹는 것」(Z=-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제 2유형의 임산부들은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식하여 책임을 다하되 평상시의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시하는 한편 옛부터 금기시되는 것이라든지 시나 때를 가리고 임신하는 것, 반듯한 음식으로 가려 먹는 것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현실 적응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임신에 따라 변화되는 여러가지 현상에 자신을 조절하는 것을 중요하게 지각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제 2유형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제 2유형에 분류된 임산부들의 Q-분류당시 가장 찬성한 진술문들과 가장 반대한 진술문들을 선택한 이유를 면담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2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7185를 보인 3번 대상자는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종교는 기독교, 가정주부로서 건강은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초산부였다.

그녀가 가장 찬성하는 진술항목은「임신시에는 평상시와 같은 성격을 유지하고 생활하는 것」「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자신의 일은 최선을 다해 하는 것」「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주변 식구들에게 불편감을 미치지 않게 위해 조심하는 것」등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임신을 했다고 누워있고 게을러지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으며 임신을 했어도 맡은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 또한 주변 식구들의 생활 패턴을 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남편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부담을 갖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혼자 처리하고 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가장 반대한 항목에서도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는데 적극 반대하는 항목으로는「운동을 하지 않는 것」「전통적으로 금기시 되는 것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것」「시나 때를 가리고 수태할 준비를 하는 것」등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운동을 해야 아기에게 좋기 때문에 놀러도 많이 가고 친정갈 때도 버스타고 간다. 전통적인 것이 간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전부 지키는 것은 아니다. 목욕은 자주 해야 위생에 좋기 때문에 샤워로 매일 매일 한다. 시나 때를 가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느낌이 있어서 싫어한다. 주시면 그대로 받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결과를 분석해 볼때 제2유형은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반면 자신이 임신부라는 현실을 수용하여 모든 생활면에서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고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관습이나 금기사항등에는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신부가 스스로 현재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조절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3) 제3유형 : 의존 지향형

제3유형으로 분류된 임신부는 20대가 2명, 30대가 2명인 모두 4명으로 학력은 고졸 이상 이었고 직업은 가정주부로서 건강을 보통이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출산력은 초산이 2명, 경산이 2명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불교가 1명이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에 속한 임신부들의 태교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진술문($Z = \pm 1.00$ 이상)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3유형에 속한 임신부들이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인 진술 문은 「임신시에는 무조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Z=1.63$),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대를 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Z=1.41$), 「시나 때를 가리고 수태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Z=1.41$), 「임신시에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Z=1.38$), 「임신시에는 마음의 평화가 훌륭한 영양분이라는 것」($Z=1.22$),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Z=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3유형의 임신부들이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 문들은 「약간의 술을 마시는 것」($Z=-2.10$), 「약물을 복용하는 것」($Z=-1.86$), 「주변 식구들에 불편감을 주

지 않게 위해 스스로 조심하는 것」($Z=-1.63$), 「임신시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Z=-1.53$),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것」($Z=-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볼때 제3유형에 속한 임신부들은 태아의 건강을 위해 금주, 운동하는것, 목욕을 자주 하는 것, 약물금지, 정기 검진을 받는 것, 시나 때를 가리고 수태를 하는 것, 남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 식구들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게 위해 스스로 조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때 무엇인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3유형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제3유형에 분류된 임신부들이 Q-분류당시 가장 찬성한 진술문들과 가장 반대한 진술문들을 선택한 이유를 면담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3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 3.0238을 보인 22번 대상자는 33세 초산부로서 건강상태는 보통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력은 대졸이었으며 혼전에 인공유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찬성하는 진술항목으로는 「임신은 시나 때를 가리고 수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책임과 정성을 다하는 것」 「마음의 평화가 훌륭한 영양분이라는 것」 「임신시에는 무조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 「아기의 미래에 대해 계획하는것은 지나치다는 것」 등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무계획적으로 임신하는 것보다 계획적인 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공유산으로 인해 막연한 죄책감이 들고 있다. 또한 기형아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이 아

<표 7> 제3유형의 $Z = \pm 1.00$ 이상인 진술문

항목번호	진술항목	표준점수
5	임신시에는 무조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1.63
20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대를 하며 책임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다	1.41
31	임신할 때나 시나 때를 가리고 수태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41
16	임신시에는 가족 특히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38
13	임신시에는 마음의 평화가 훌륭한 영양분이라고 생각한다	1.22
1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임신시에도 적당한 운동을 해야한다	1.13
21	태아기부터 태아의 미래생활을 계획하거나 기대를 갖는 것은 지나칠 것 같다	1.05
6	임신시에는 청결하기 위해 목욕을 자주하는 것은 태아에게 좋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1.49
2	임신시에 운동을 하는 것은 모체나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3
17	임신을 했어도 주변 식구들에게 불편함을 미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1.63
7	임신시에는 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	-1.86
8	임신시에도 약간의 술은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	-2.10

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기는 아기 자체가 자신의 팔자를 타고 나고 운명지어 졌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적극 반대하는 항목으로는 「주변 식구들에게 불편감을 미치지 않게 위해 조심하는 것」 「술을 마시는 것」 「운동을 하지 않는 것」 「목욕을 하지 않는 것」 「약물을 복용하는 것」 등을 선택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임산부의 특수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주변 식구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약물과 술은 금하고 목욕이나 운동은 자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제 3유형은 임신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을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도 생명체인 태아를 위해 시나 때를 가려서 수태하고 정기 검진을 받고 주변 식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존 지향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4) 태교에 대한 공통적인 태도

태교에 대한 공통적인 태도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일치하는 항목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유형간에 찬성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여주는 내용이 7개문항이 있었다(표 8).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대를 하며 책임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다’는 항목에서 3개의 유형이 공통적으로 찬성하여 의견의 일치를 모여 주었는데 이는 태아의 존재를 생명체 이상의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인격적 존중의 태교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신시에는 가족 특히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로서 임신시에 지지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외에 임신시에 마음의 평화는 태아와 임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서 중요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운동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모체의 건강과 태아의 신체적인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술과 같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임산부의 태아에 대한 태도, 마음의 평안, 신체적인 건강함의 유지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 의

본 연구 결과 임산부들이 지각하고 있는 태교의 구조적 유형은 3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서 안정형

이 유형에 속한 임산부들은 마음의 평화가 훌륭한 영양분으로 생각하고 정서함양을 위해 음악감상, 그림감상을 하고 남편의 도움, 관심을 필요로 하며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끊임없이 교류하고 태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한편, 태아와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 술금지, 목욕을 자주하고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관습인 고르게 생긴 음식을 먹는다는 금지시되고 있는 행동을 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나타나는 임부의 행위로서 언행, 마음, 감정의 정화를 제시한 마계향(1986)과 일치하며 이것은 여자가 임신중에 건강을 위해 힘쓰고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잘 닦으며 마음을 고유하고 편안히 하여 깨끗이 할 것이며 마음과 정신, 그리고 성품을 부드럽게 하여 성숙된 인격체를 지닌 훌륭한 아기를 분만케 하고 태내에서 자라는 태아를 건강하고 충실하게 자라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임부를 중심으로 전 가족도 참여하여 태어날 생명체를 위해 인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도 의미한다.

한편, 조동숙(1987)의 태교는 민속의 한 부분으로서

<표 8> 유형간 일치항목

항목번호	진 술 항 목	표준점수
20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대를 하며 책임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다	1.58
16	임신시에는 가족 특히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	1.52
13	임신시에는 마음의 평화가 훌륭한 영양분이라고 한다	1.31
1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임신시에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한다	1.03
8	임신시에도 약간의 술은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	-1.89
2	임신시에는 운동을 하는 것은 모체나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9
6	임신시에는 청결하기 위해 목욕을 자주하는 것은 태아에게 좋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1.41

가족의 배려가 필요하며 전통적으로 금기되는 상황과 권장 상황으로 분리된 것을 볼 때 태아를 위한 임신부의 태교행위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체와 정신을 병행시키며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동양사상과 동양의학의 윤리가 부합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2. 자기 조절형

이 유형의 임신부들은 태아를 생명체로서 인식하여 책임을 다하고 자신이 임신부라는 현실을 수용하며 모든 생활면에서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려는 사고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관습이나 금기사항들에는 특별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임신부 스스로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태교가 남편과 가족전체 즉, 시부모, 친부모 그리고 그외의 가족이 전폭적으로 협력하여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족적인 노력이지만 임부 자신이 실천의 주체자임을 인식한 조연희(1993)의 “어머니로서의 적응 과정”을 나타낸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자신의 생활 패턴의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볼 수 있으며 인간의 도리로서 부모된 의무로서 태중의 아이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현실을 인지하여 적응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볼 때 변화되어가는 실제 상황에서 모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된다.

3. 의존 지향형

이 유형에 속한 임신부들은 임신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은 지켜야 하며 시나 때를 가려서 수태를 하고 정기 검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주변 식구들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임신부들은 임신이라는 특수상황이 주변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자신이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모든 주변의 가족 식구들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가족생활사 중 가장 중심적인 사건으로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건강관리양상에 관한 사고의 틀도 전통적인 관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3유형 모두에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행위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태교의 행위로서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는 유형은 마음의 평화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유지하면서 감정을 고르게 하고 전통적으로 유래되고 있는 관습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기 조절형은 임신부 자신의 존재를 실존적으로 인식하여 자기 주도적인 태교행위를 현실에 맞추어 이행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존 지향형은 임신을 가족의 중심적인 관심 요인으로 인식하여 가족의 전통적인 관습과 밀접한 사고의 틀 안에서 태교를 이행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임신부의 태교에 관한 주관성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면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모체의 상태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아래 태교의 내용을 보면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임신부의 태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임신을 한 임신부의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임신부가 이행하고 있는 태교행위 유형을 발견하며 태교의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교행위의 3개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태교 특성에 따라 제 1유형은 정서안정형, 제 2유형은 자기조절형, 제 3유형은 의존지향형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제 1유형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음악감상이나 그림감상을 하고 남편의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하는 정서 안정형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잘하며 마음을 고유하고 편안히 하여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제 2유형은 자신이 임신부라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모든 생활중에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려는 사고의 패턴을 유지하고 임신부 스스로가 변화되어가는 상황에 맞추는 것을 중시하는 자기 조절형으로 높은 적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 3유형은 임신이라는 특수상황이 주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의존 지향형으로 자기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모든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파악된 임신부의 태교의 독특한 경험과 특성 및 구조는 간호사정의 일 요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산모에 대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임신은 여성이 생의과정에서 맞게되는 경험으로 적절한 간호중재를 하게되면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임신부의 태교행위의 각 유형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본 연구결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집단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에서 나온 진술문을 토대로 태교행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권영철(1972). 태교신기연구, 여성문제연구, 제2편, 대구 : 효성여자대학.

김혜자(1991). 출산부인의 태교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김현옥(1997). 태교실천에 대한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2), 411-421.

마계향(1986). 임부의 태교에 관한 조사 연구. 최신의학, 29(9), 169-176.

사주당 이씨, 소화 13년(1938). 태교신기언해. 유근영발행.

이동민(1989). 태중교육. 서울 : 명문당.

이정섭, 전정자, 유은광(1987). 간호대상자의 문화배경별 임신관리양상의 비교 연구. 대한간호, 26 (4), 64-75.

임동근(1986). 태, 서울 : 우성 출판사.

유안진(1984).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정민사

유안진(1992).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주정일(1985). 아동발달학. 서울 : 교문사

조동숙(1987). 출산부인의 태교실태와 건강전문인의 태교에 관한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조연희(1993). 우리나라 임부들의 태교에 대한 인식 및 실천도 조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조희숙(1996). 운 좋은 아이로 키우는 법. 책 만드는 집.

장순복, 박영주, 최연순, 정재원(1996). 한국임부의 태교요인 -동양 민속행위적인 임부의 자가관리 - 간호학회지, 26(2), 345-358.

최경옥(1974). 태교에 관한 탐색적 일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연순, 김현옥(1995). 임신부부의 태교실태조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53-173.

한국어 사전 편찬회편(1976). 한국어 대사전. 서울 : 현문사

한국방송공사(1984). 아기는 초능력, 비디오테이프.

Bernard, J., & Sontag, L. W.(1947). Fetal reactivity to tonal stimulation :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70, 205-210.

Birnholz, J. C.(1984). Fetal neurology. In R. Saunders & M. Hill, (Eds.), Ultrasound Annual, (pp. 139-160), New York : Raven Press.

Cranley, M. S.(1981).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ing Research, 30(5), 281-284.

Davis, M.S. & Akridge, K.M.(1987). The effect of Promoting intrauterine attachment in primiparas on postdelivery attachment. JOGNN, 16, 430-437.

Eaton, R.C.(1984). Neural mechanisms of startle behavior. New York : Plinum Press.

Janov, A.(1973). The feeling child. New York : Simon Schuster.

Levinson, B.(1993). The rights of the unvorn child seen through eyes of a psychologist. Medicine & Law, 12(6-8), 471-477.

Morrison, G.S.(1984).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 Columbus, OH : Merrill.

Salk, L.(1962). Mothers hearheat as inprinting stimulus. New York. Academic sciences series, II, 753-763.

Smotherman, W.P. & Robinson, S.R.(1988). Behavior of the fetus. New Jersey : The Telford.

Spence, M.J. & DeCasper, A.J.(1987). Prenatal experience with low-frequency maternal-voice sounds influence neonatal perception of maternal voice sample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10, 133-142.

– Abstract –

Key concept : Taegyo, Pregnant Woman

A Study on Taegyo Types of the Pregnant Woman

– Q-methodological Approach –

Kim, Soon Yi · Ryu, Chill 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tructural patterns in the subjectivity of Taegyo in pregnant woman and to provide a basis for nursing interventions. Thirty pregnant women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ey were in the gestation period of pregnancy between 12 weeks to five days post partum and they lived in the city of Taejeon.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Q-methodology which is based on self-psychology and abductive logics.

The results revealed three different types of the Taegyo :

- 1) Peaceful mind type, listening to music and appreciation of art for quietness of mind and also the support and concern of husband.
- 2) Self control type, recognizes herself as a pregnant woman and tries to do her works spontaneously and also adapt herself to changing of circumstances.
- 3) Dependent oriented type, needs absolute help from the surroundings under the specific condition of pregnancy.

This results show that investigating the specific experience, characteristic and structure of the Taegyo of a pregnant woman can be used as a part of the nursing assessment and also provides useful basic data of nursing interventions during pregnancy.

* Taejeon Junior College

** Taejeon Junior College